

- 주요 뉴스: 연준 파월 의장, 최종금리 상향 예상. 금리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
 - 골드만삭스의 CEO,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유의미하게 증가
 - ECB 설문조사,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.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증가
 - 중국 1~2월 수출 및 수입, 전년동기비 감소.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원인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
 주가 하락[-1.5%], 달러화 강세[+1.2%], 금리 상승[+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및 광산주 약세 등으로 0.8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3월 FOMC에서의 0.50%p 인상 가능성 등이 영향
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1.2%, 0.9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가 동반되며 상승폭이 제한
 독일은 파월 의장 발언 이전 경계감 등으로 6bp 하락 마감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6.5원, +17.1원) 1.5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3/7일	3/6일	전일대비			3/7일	3/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86.4	4,048.4	-1.53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6%	3.96%	1bp
	유럽	460.60	464.18	-0.77%		독일	2.69%	2.75%	-6bp
	중국	3,285.1	3,322.0	-1.11%		영국	3.82%	3.87%	-4bp
	일본	28,309	28,238	0.25%	CDS 5y	한국	42bp	41bp	1bp
	한국	2,463.4	2,462.6	0.03%		중국	68bp	64bp	4bp
	달러지수	105.63	104.35	1.22%	위험 지표	EMBI+	-	380	-
환율	유로화	1.0549	1.0681	-1.24%		VIX	19.59	18.61	5.27%
	엔화	137.16	135.93	-0.90%		WTI유	77.58	80.46	-3.58%
	위안화	6.9662	6.9318	-0.49%	원자재	구리	397.6	410.1	-3.05%
	원화	1,299.4	1,296.9	-0.19%		금	1,813.5	1,846.9	-1.81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파월 의장, 최종금리 상향 예상. 금리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

-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양호하며, 이에 최종금리 수준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. 또한 경제지표들이 보다 빠른 속도의 통화긴축을 필요로 한다면,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
-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, 목표(연율 2%) 도달까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언급. 3월 FOMC 개최까지 중요한 경제지표 2~3개가 발표되는데, 이들은 최신의 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첨언.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노동시장 수급이 팽팽하다고(tight) 부연
-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국채금리 상승(2Y: 5.01%, +12bp), 미국 달러화 강세(DXY: 105.63, +1.22%), 주가 하락(S&P500: 3986.4, -1.53%) 등이 발생. 파월 의장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점도표 상의 금리 역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될 전망(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)
-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 FOMC에서 0.50%p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증가. CME의 FedWatch Tool 역시 연방기금금리(현재 4.50%~4.75%)가 3월 0.50%p 인상되고 6월에 최종금리(5.50%~5.75%)에 이를 것으로 관측. 첫 금리인하(-0.25%p)는 내년 1월(5.25%~5.50%)에 가능할 것으로 추정
- 한편 파월 의장은 3/7일과 8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 출석하는데,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금리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수 있다고 우려.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과도하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, 부유층에 대한 증세 제안. 공공의료보험 재원 충당할 필요

-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납세자에 부과되는 Medicare(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공공의료보험) 세율을 3.8%에서 5.0%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. 이는 Medicare의 재정 고갈 우려가 제기되지만,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

■ 골드만삭스의 CEO,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유의미하게 증가

- 데이빗 솔로몬 CEO는 6개월 전과 비교하여 연착륙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. 향후 경제 여건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, 이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. 또한 연준은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진단

■ ECB 설문조사,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락.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증가

- 1월에 조사된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(연율)은 2.5%를 기록하여 전월(3.0%) 대비 낮은 수준.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(연율)은 소폭 하락(5.0%→4.9%). 이번 발표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ECB가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

■ 독일 1월 공장수주, 예상치 상회. 자본재 부문 등이 호조

- 1월 공장수주는 전월비 1.0% 증가하여 예상치(-0.7%) 대비 높은 수준. 이번 결과는 자동차 및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부문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.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이 독일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

■ 중국 1~2월 수출 및 수입, 전년동기비 감소. 글로벌 경기둔화 등이 원인

- 1~2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6.8% 줄었고, 수입 역시 같은 기간 10.2% 감소.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외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, 이는 중국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(ING의 Iris Pang)
- 다만 전문가들은 해외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재개 등은 국내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

■ 호주중앙은행, 0.25%p 인상. 인플레이션 제어 위해 추가 인상 필요

-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0.25%p 높은 3.6%로 결정.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임금상승률 역시 당초 전망보다 낮는데, 이는 호주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(Oxford Economics의 Sean Langcake)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8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파월 의장 증언 및 연준 베이지북,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
- 미국 1월 JOLTS 구인건수, 2월 ADP 민간고용, 1월 무역수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실물경제의 호조, 금융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Good news on the economy could be bad news for markets)

- 최근 유로존 PMI 외에 미국의 고용과 소비 지표 등이 양호한 흐름. 이에 따라 그간 시장이 의문을 제기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대두.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및 유럽의 에너지 문제 완화 등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
-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, 수요가 다시 가속화될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. 투자자들은 경제 관련 호재가 금리상승을 초래하여 주식 및 채권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

■ 미국 기업, 비용증가와 매출둔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지속될 우려 - Financial Times

(All eyes on sales growth)

- 최근 S&P500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. 이는 그동안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수익성의 정상화 과정인 것으로 판단. 공급망 안정으로 원재료 가격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제품가격 상승 압력이 약화되고 영업이익률도 장기 평균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전망
- 이에 더해 임금상승 등에 따른 비용증가 압력은 증폭.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, 최근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비용증가 추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
-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 매출증가가 중요. 그러나 S&P500 기업의 향후 1년 매출은 감소할 전망(Bloomberg). 이는 고금리 예측 불구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높은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

■ 일본은행 총재 교체 예정,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소지 - 블룸버그

(Volatility Risks Rise as Era of BOJ's Kuroda Ends)

- 역대 최장기간 일본은행 총재를 역임한 구로다 총재가 조만간 사임할 예정인데,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우려
- 향후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'인플레이션의 부재'가 더 이상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점, 차기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의 정책 성향, 정치적 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
- 지금까지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우에다 차기 총재가 급격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가능성에 무게. 또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비용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근원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높은 임금 지표를 주시할 필요

■ 유럽, 에너지 위기 극복했지만 여전히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 - 블룸버그

(Europe Is Winning the Energy War, Only to Face Recession)

- 최근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규모 지출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. 하지만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.5%에 이르면서 ECB가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
-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, 일부 국가의 경우 실업률이 상승. 이에 ECB의 통화긴축 강화 보다는, 미국 및 중국과 같이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

■ 미국 경제, 고물가 속 양호한 고용 등으로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소지 - WSJ

(Time to Get Used to Higher Rates)

■ 미국 지방정부의 양호한 재정, 경기 연착륙 유도로 연준의 정책 결정 어려움 가중 - 블룸버그

(Stealth Fiscal Stimulus Is Complicating the Fed's Job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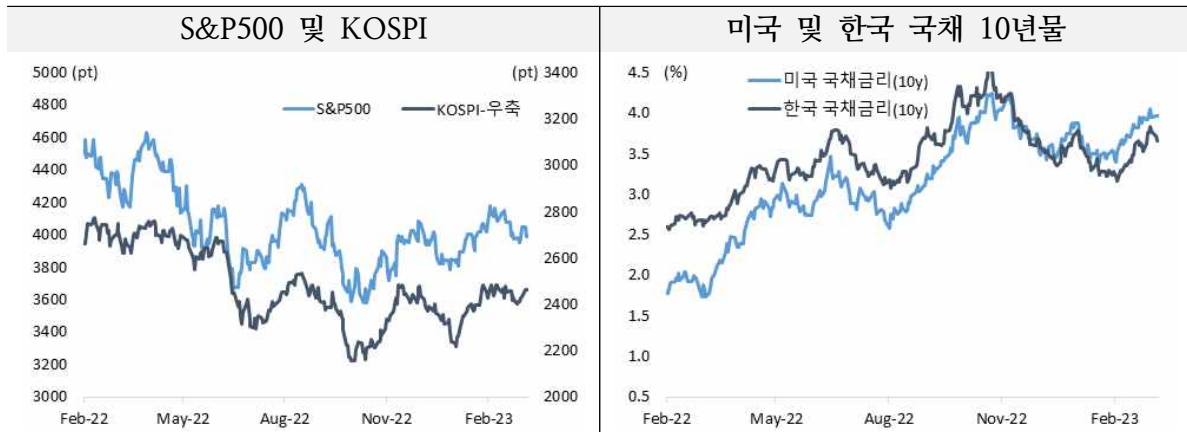
■ EU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, 역내 정치·경제적 통합 확대가 선결 과제 - Financial Times

(The EU's future in a world of deep disorder)

■ 중국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 목표, 글로벌 고물가 우려 완화 유도를 기대 - 블룸버그

(China's Rebound Matters Greatly, Modest Or Not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